

심층분석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2026.05.10

심층분석보고서: 한양대학교 사무직(일반행정)

1장: 산업(섹터) 분석

1-1. 학령인구 절벽이 고등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구조적 충격

한국 학령인구(만 6세에서 17세)는 2026년 약 483만 명대로 하락하면서 500만 명 선이 무너지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024년 34만 7,950명에서 2026년 약 29만 600명, 2029년 24만 4,965명까지 줄어듭니다. 이 숫자는 6년 뒤인 2032년에서 2035년 사이 대학 입학 적령 인구가 현재 대비 30% 이상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대학 단계에서도 충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경쟁률 0배에서 3배 미만인 대학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4년제 대학 208곳 가운데 재학생 충원율 80% 미만이 27개교(13%)에 달합니다.

이 같은 수요 붕괴는 사립대학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시장은 국공립대(서울대, 지방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가 약 2대 8의 학생 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립대의 수입 구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70% 수준입니다. 학령인구가 줄면 지원자가 감소하고, 등록금 수입이 줄며, 정원 미달 대학은 교육부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현 입학정원 42만 3천 명을 유지하면 2040년에는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채우지 못하는 구조적 미달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이 충격은 대학 간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상위 사립대, 특히 서울 소재 종합대학은 입시 경쟁률이 여전히 10대 1을 넘기며,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2024년 신입생 경쟁률 19.3대 1, 재학생 충원율 100.3%를 기록하였습니다. 학령인구 절벽은 지방대와 비수도권 중소 사립대에 집중 타격을 주고, 수도권 상위 대학은 오히려 "공급 감소에 의한 선별 기능 강화"로 포지셔닝이 공고해지는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양대 일반행정 지원자는 이 양극화 구조 속에서 한양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1-2. 등록금 동결 장기화의 종언과 사립대 재정 운영 환경의 변화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도입과 동반하여 사실상 14년에서 16년간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는 약 25% 상승했으나, 대학 등록금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재정 악화의 결과로 사립대의 교육여건(강의당 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시설 노후화)은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흐름이 2025학년도에 분명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발표 기준으로 2026학년도 일반대 190곳 중 125곳(65.8%)이 등록금을 인상하였고, 사립대 인상률 80.8%대 국공립대 7.7%라는 극명한 대조가 나타났습니다. 한양대 역시 서울캠퍼스 14년, ERICA캠퍼스 16년의 동결을 끝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4.9%,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5%로 인상하였습니다. 대학원 입학금과 연구등록금은 동결하였습니다.

이 변화가 사립대 일반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과 자료 작성, 인상분 사용 계획 공시(장학, 시설, 교육환경 개선 내역), 등록금심의위 학생 측과의 협상 과정 지원,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운영 등이 행정 부서의 연례 업무로 재등장하였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1차 신청 기간이 2월 11일부터 2월 17일, 1차분 수납이 3월 4일부터 3월 6일로 운영되고 있어, 재무팀 및 학사운영팀의 행정 부하가 등록금 동결 시기와 비교하여 명확히 증가했습니다.

1-3. RISE 도입과 글로벌대학30이 만들어낸 사립대 행정의 새로운 지형

교육부는 2025년부터 기존 6개 대학재정지원사업(연 약 790억 원, 28개 대학 대상)을 통합 재편하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RISE의 가장 큰 특징은 권한 일부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다는 점입니다. 종전의 중앙정부 일괄 공모 방식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추어 대학에 과제를 배분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 행정 부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광역시도 RISE 위원회 등 다층적 거버넌스와 행정적으로 접합해야 합니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5년간 대학당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지만, 2025년 마지막 10개 추가 선정으로 사업 확장이 종료되었습니다. 한양대는 글로벌대학30 선정 대상이 아니나, 서울 RISE와 경기 RISE에 양 캠퍼스가 동시 선정되어 5년간 합산 39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캠퍼스가 서울 RISE에서 35개 선정 대학 가운데 과제비 기준 3위(연 39억 원, 5년 195억 원)에 선정되었고, ERICA캠퍼스는 경기 RISE 미래성장산업 선도형(연 40억 원, 5년 200억 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 직군 관점에서 이 변화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RISE 사업은 연차별 목표 이행 점검, 사업비 정산, 성과지표 관리,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지자체 RISE 위원회 대응이라는 새로운 행정 업무군을 발생시킵니다. 한양대의 경우 서울캠퍼스 3개 과제(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와 ERICA 미래성장산업 선도형(G7 반도체 및 미래차, GX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예술)이라는 이질적 과제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 행정 인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신규 채용되는 일반행정 직원이 사업 정산 및 평가 행정에 배치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1-4. AI 전환이 대학 교육과 행정 양쪽에 동시 부여하는 과제

이기정 총장은 2025년 11월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추론, 근거, 실행(Reasoning, Evidence, Action)" 학습 모델 도입과 한양 인터칼리지(미래반도체공학, 융합의과학, 인지융합과학 등 6개 융합 전공) 운영을 한양대의 핵심 차별화로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대교협 회장 취임사에서 "AI 시대에 따른 교육 및 연구 혁신 공통기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였습니다.

AI 전환은 교육 혁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행정 혁신의 문제입니다. 일반행정 입장에서 AI 전환은 세 가지 경로로 업무 변화를 유발합니다. 첫째, 학사 시스템(HY-in 포털, 수강편람, 학습관리시스템 LMS)의 디지털화 가속입니다. 수강신청, 성적조회, 등록금 고지, 장학금 신청, 학적 변동 처리 등이 온라인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이 행정 업무의 핵심 구성요소가 됩니다. 둘째, AI 기반 수업, 시험, 논문 윤리 규정의 정비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과제 제출, 논문 작성, 시험 응시에 대한 학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가 필요하며, 이를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몫입니다. 셋째, 챗봇 및 자동화 도구의 도입에 따른 행정 업무 재설계입니다. 민원 응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대, FAQ, 서류 발급 등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 행정 직원의 역할은 "처리자"에서 "예외 관리자 및 품질 감독자"로 이동합니다.

한양대는 이미 2025년 신규 선정된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으로 총 296억 원의 교육 재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의 행정 운영 역시 일반행정 부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1-5. 수익 다각화의 필요성과 사립대 가치사슬 구조의 재편

등록금 의존 모델의 한계로 사립대 수익은 다변화 중입니다. 주요 수익원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정부 R&D 수주(BK21, LINC 3.0, SRC, BRIDGE 등)입니다. 이는 연구중심대학에 유리하며, 대형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연간 수백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둘째, 기술이전 및 기술지주회사 수익입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3년간 연평균 기술료 131억 원, 2년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8만 1,842명으로, 2013년 8만 5,923명의 2.1배에 달합니다. 한양대가 6,612명(2023년 기준)으로 국내 1위이며, 경희대(6,395명), 성균관대(5,472명), 연세대(4,965명), 중앙대(4,480명)가 뒤를 잇습니다. 넷째, 평생교육 및 MOOC 등 성인학습 시장 진출입니다. 다섯째, 부속병원, 기업 후원, 발전기금 등 비학비 수입입니다.

사립대의 가치사슬 구조를 분해하면, 상류(입시 및 학생 유치)에서 중류(교육 및 연구 수행)를 거쳐 하류(졸업생 취업, 동문 네트워크, 기부금 환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이루며, 여기에 병렬적으로 산학협력(기술이전, 창업지원, 기업 수탁연구)이 독립 수익 라인으로 작동합니다. 한양대는 이 산학협력 병렬 라인이 국내 사립대 가운데 가장 두꺼운 대학이며, 이 특성이 일반행정 직원의 업무 환경을 타 사립대와 구별 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1-6. 고등교육 산업의 경쟁 구도와 플레이어 분류

국내 고등교육 시장의 플레이어는 크게 네 범주로 분류됩니다. 첫째, 서울대, KAIST, POSTECH, GIST 등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중심대학입니다. 이들은 등록금보다 국고 지원이 핵심 수입원이며, 재정 안정성이 사립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둘째, 연세, 고려, 성균관, 한양, 중앙, 경희, 서강, 이화 등 수도권 상위 사립 종합대학입니다. 이 그룹은 입시 경쟁률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최근 QS 세계대학랭킹에서도 순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 거점 국립대(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입니다. 이들은 국고 지원으로 재정 안정성은 있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째, 비수도권 중소 사립대입니다. 이 그룹이 학령인구 절벽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정원 미달, 재정 악화, 구조개혁 평가 하위 등급이라는 삼중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한양대는 둘째 범주의 중상위에 위치합니다. 연세대, 고려대보다는 평판 순위에서 뒤지나,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에서 국내 사립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에서 서울 3위로 고려대를 앞지른 사례가 보여주듯 특정 지표에서는 전통 명문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양대 일반행정 지원자가 산업 환경에서 인지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한양대는 "안정과 반복"의 직장이 아니라 "RISE, 캠퍼스타운, BK21, BRIDGE 등 외부 사업 사이클을 끊임없이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행정으로 구현해야 하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 환경에서 한양대는 상대적 수혜자(수도권 상위권 사립대)이지만, 그 우위를 유지하려면 산학협력과 국제화 KPI를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셋째, 등록금 동결 종언 이후에도 사립대 행정의 디지털화와 효율화 압박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도구의 도입은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며, 일반행정 직원은 시스템 운용, 데이터 품질 관리, 예외 처리라는 새로운 역할로 이동하게 됩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글로벌 대학평가에서의 한양대 위치와 3개년 추이

2026 QS 세계대학랭킹에서 한국 대학 순위는 서울대 38위, 연세대 50위(전년 56위에서 6계단 상승), 고려대 61위, POSTECH 102위, 성균관대 126위, 한양대 159위(전년 164위에서 5계단 상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AIST는 학계 평판도 설문 로비 논란으로 2026년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QS는 2027년 에디션에서 복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양대의 5계단 상승에는 KAIST 제외 효과가 일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S 학과별 2026 평가에서 한양대 공학 및 기술 분야는 전년 대비 10계단 이상 상승한 102위(국내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사회과학이나 인문학보다 공학에서의 강세가 재확인된 것입니다. 2026 QS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는 연세대(11위), 고려대(12위), 성균관대(16위), 서울대(17위), POSTECH(18위), 한양대(20위) 순으로, 한양대가 2년 연속 아시아 톱20을 유지하였습니다.

3개년 추이를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가 논문 피인용 점수에서 3년간 30점 이상 급등하며 순위 상승을 견인한 반면, 한양대는 고용주 평판(Employer Reputation)과 국제 학생 비율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양대의 산학협력 중심 포지셔닝이 QS 평가에서 고용주 평판 지표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 학생 비율은 유학생 6,612명(국내 1위)이라는 양적 기반에서 비롯됩니다.

다만 2026 QS 지속가능성 순위에서 한양대는 161위로 전년 대비 25계단 하락하여, 국제화의 양적 지표는 우수하나 ESG와 지속가능성은 상대적 후순위 과제임이 드러납니다. 이 점은 향후 한양대 행정에서 ESG 관련 공시, 탄소중립 실행계획 행정, 사회적 책임 보고서 작성 등이 새로운 업무로 부상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2-2.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에서의 약진과 부문별 강점

2025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에서 서울대 1위, 연세대(서울) 2위, 한양대(서울) 3위(전년 5위에서 2계단 상승), 고려대(서울) 4위, 성균관대 5위가 기록되었습니다. 한양대가 고려대를 제치고 톱3에 진입한 것이 2025년 대학평가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중앙일보는 한양대의 강점으로 교수당 외부연구비 5위(총 2,824억 원), 국제학술지 피인용 2위, 3년간 학생창업 지원액 405억 원(2위), 창업기업 198개(3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RICA캠퍼스는 외국학생 비율(학부 19.2%, 전체 2위)과 외국대학 학점교류(8위)에서 강세를 보이며 종합 13위(전년 16위에서 3계단 상승)에 올랐습니다. 한양대는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가 동시에 톱20에 진입한 유일한 대학이며, 이는 이원 캠퍼스 체제가 평가 지표 확보에서 불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려 양 캠퍼스의 이질적 강점(서울의 연구 및 산학, ERICA의 국제화 및 산업 밀착)을 각각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문분야 평가에서도 한양대는 9개 분야 중 8개에서 "최우수" 등급, 인문학에서만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학과 자연과학에서는 서울대, 연세대와 함께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2-3.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분야에서의 독보적 위상

한양대 산학협력단의 실적은 국내 사립대 가운데 압도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2003년 12월 국내 사립대학 최초로 산학협력단(법인격)을 설립하였고, 2008년 9월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기술지주회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캠퍼스 기술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는 46개, ERICA캠퍼스에는 별도로 18개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기술이전 수입액, 건당 수입액, 과학기술 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모든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기술료 수입은 13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실적을 뒷받침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조직 규모인데, 잡코리아 기업정보에 따르면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종업원 769명, 매출 약 2,985억 6천만 원(2024년 NICE D&B 기준)에 이르는 사실상 독립 사업조직입니다. 이는 별도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부 표창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연구 산업 유공자),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기술사업화 유공자),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2회 연속 선정 등이 있습니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은 누계 16회 수상하였습니다.

타 사립대와 비교하면, 연세대는 의료원 매출과 인문사회 연구역량, 고려대는 법학 및 사회과학 평판, 성균관대는 삼성 후원에 기반한 자연과학캠퍼스의 장비 및 시설 투자에서 각각 강점을 갖고 있으나, 기술이전과 산학협력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한양대를 넘어서는 사립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별화가 한양대 일반행정 직원의 업무 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2-4. 캠퍼스 및 산업 클러스터 모델 비교

주요 사립대의 캠퍼스 모델을 비교하면, 각 대학이 산업과의 접합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연세대는 서울 신촌캠퍼스(종합대학 본부)와 미래캠퍼스(원주, 보건과학 특화), 국제캠퍼스(인천 송도, 레지덴셜 칼리지) 3원 체제를 운영합니다. 연세대의 산학협력은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 중심의 의과학 연구와, 송도캠퍼스의 바이오 및 의료 R&D가 양대 축입니다. 고려대는 안암캠퍼스(서울, 인문사회 강세)와 세종캠퍼스(충남 세종, 이공 및 응용)로 나뉘며, 안암 고려대의료원의 의과학 연구가 산학의 중심입니다. 성균관대는 인문사회캠퍼스(종로구 명륜동)와 자연과학캠퍼스(경기 수원)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와의 물리적 근접성(수원 캠퍼스)이 산학 연계의 핵심 기반입니다. 중앙대는 서울캠퍼스(동작구)와 안성캠퍼스(다빈치)로 나뉘며, 미디어와 콘텐츠, 약학에서 특성화를 추구합니다. 경희대는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용인)로 이원화되어 있고, 한방의학 및 호텔관광 분야에서 니치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양대의 캠퍼스 모델은 산업 밀착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서울캠퍼스는 성동구 왕십리 일대에서 성동구청, 서울시와의 캠퍼스타운 사업(4년 48억 원, 1만 5천 제곱미터 창업 공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간, 연 55개 유망 창업기업 및 아기유니콘 4개 이상 배출 목표)을 운영하며, ERICA캠퍼스는 2025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캠퍼스혁신파크 부지를 포함한 1.66제곱킬로미터(약 50만 평)를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대학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안산사이언스밸리)의 사업비는 4,105억 원이며, 생산유발효과 2조 2,231억 원, 고용유발 1만 1,849명으로 추정됩니다. 시행자는 안산시와 한양학원이 공동이며, 캠퍼스혁신파크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인테그리스코리아 KTC, 한양대병원 분원, 국제학교 입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직원에게 이는 부지 관리, 기업 입주 행정, 국제학교 운영 협업이라는, 일반 사립대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업무 영역이 추가됨을 의미합니다.

2-5. 외국인 유학생 및 국제화 위상 상세

한양대는 2023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6,612명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경희대 6,395명, 성균관대 5,472명, 연세대 4,965명, 중앙대 4,480명이 뒤를 잇습니다. 한양대의 외국인 유학생 구성을 보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권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및 아프리카(에티오피아, 가나) 출신 학생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기정 총장은 국제화 전략에서 "유치(Attraction)"에서 "정착과 성공(Settlement & Success)"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였으며, HY-Global 네트워크의 확장 계획으로 2024년 베이징, 2025년 말레이시아, 2026년 ASEAN 및 중동, 북미로의 단계적 전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처, 국제교육원, 국제입학팀, 글로벌인재개발센터 등 국제 관련 부서의 업무량이 "유학생 모집"을 넘어 "유학생 정주 지원, 비자 행정, 취업 연계,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확대됨을 뜻합니다.

2-6. 종합 포지셔닝 정리

각 대학의 포지셔닝을 핵심 키워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평판, 인문사회, 의료원 매출 기반의 "전통 명문 종합대" 모델입니다. 성균관대는 삼성 후원과 자연과학 캠퍼스의 "기업형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한양대는 공학, 산학협력, 기술이전, 창업의 "실용 및 산업 연결" 모델이며, ERICA를 통한 "산업단지 일체형 대학" 시도가 가장 독보적인 차별화 요소입니다. 중앙대와 경희대는 각각 콘텐츠 및 미디어, 국제 및 한방의학 중심의 특성화 모델입니다.

한양대는 전통적 평판 서열에서 연세, 고려 아래에 위치하나, 산학협력이라는 특정 가치 지표에서는 국내 사립대 전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강점이 캠퍼스타운, 경제자유구역, 기술지주회사라는 제도적 형태로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 대학과 구별됩니다.

2-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양대 일반행정 직군이 행정 비교우위를 만들어내야 하는 영역은 "학사 그 자체"보다는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와의 행정 인터페이스, 글로벌(특히 외국인 유학생 정주 및 취업) 행정, 그리고 ERICA 경제자유구역 및 캠퍼스혁신파크 등 부동산과 산업 부지 행정으로 압축됩니다. 연세대나 고려대가 평판과 연구 논문에서 한양대보다 앞서 있는 영역에서 한양대가 중앙일보 평가 톱3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행정 인프라 차이 때문이며, 지원자는 이 점을 한양대 고유의 직무 특성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구조와 산하 조직

한양대학교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산하의 사립 종합대학입니다. 한양학원은 한양대학교 외에도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등 자매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계열사로 한양산업개발(건설 시공)과 한양증권(매각 진행 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개교 87주년에 해당하며, 건학정신은 "사랑의 실천(애지실천)", 교훈도 동일합니다. 교수(校獸)는 사자이며, 현재 슬로건은 "Bold Steps to Soar Higher"입니다.

한양학원 이사장은 김종량이며, 총장은 이기정입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은 2018년 기준 4,983억 원으로 사립대 4위권에 해당합니다. 확보율은 108%로 법정 기준(100%)을 초과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18년 기준이므로 최신 수치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양학원은 최근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재단 차원의 자금 흐름 재편도 진행 중입니다.

3-2.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의 조직 및 학생 구성

서울캠퍼스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위치하며, 14개 단과대학 및 학부를 운영합니다. 학부 재학생은 약 1만 5천 명, 휴학 포함 약 2만 2천 명 수준입니다. 공과대학이 약 6,000명으로 가장 크고, 의과대학 800명, 경영대학 1,500명, 사범대학 900명, 음악 및 예체능대학 1,300명, 인문대학 1,000명, 사회과학대학 1,000명, 자연과학대학 1,000명, 정책과학대학 500명, 경제금융대학 600명 수준입니다. 대학정보공시(2024) 기준 학생정원 11,795명, 재학생 11,828명, 신입생 충원율 99.9%, 재학생 충원율 100.3%, 학부 신입생 경쟁률 19.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ERICA캠퍼스는 경기 안산 상록구 한양대학로 55에 위치하며, 8개 단과대학을 운영합니다. 학부 재학생은 약 9천 명입니다. 공학 및 과학기술 계열 3,700명, 국제문화대학 1,400명, 언론정보대학 700명, 경상대학 1,300명, 디자인대학 800명, 생활체육과학대학 500명 수준입니다. 약학대학(2010년 인가), 로봇공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레인보우 학과"로 불리는 특성화 학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서울과 ERICA 합계 약 9,000명(일반대학원 3,000명, 특수대학원 2,700명, 전문대학원 700명 석사, 박사 1,400명 수준)이 재학 중입니다. 양 캠퍼스 합산 총 재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약 3만 3천 명에서 3만 5천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3-3. 이기정 총장의 거버넌스와 2026 중기발전계획

이기정 총장은 한양대학교 제16대 총장으로, 영어영문학과 교수 출신이며,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59년생으로, 2023년 3월 2일에 취임하였습니다. 형은 이기식 전 병무청장이며, 부친은 이흥섭 해군 대령(6.25 충무무공훈장 수훈자)입니다.

2026년 3월 4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취임 핵심 과제로 고등교육 재정 기반 공고화, 정책 추진체계 일관성, 규제 합리화와 자율 강화, AI 시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대 교육 및 연구 혁신 공통기반 구축, 상생형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국제화 방향 전환(유치에서 정착과 성공으로)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교협 회장 취임은 한양대에 두 가지 함의를 갖습니다. 첫째, 이 총장의 대외 활동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교내 행정에 부총장단의 자율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대교협 차원의 정책(등록금 자율화, 정원 조정, RISE 거버넌스 등)에서 한양대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한양대 공식 사이트는 "2026 중기발전계획(서울/ERICA)"을 별도 페이지(hanyang.ac.kr/web/www/2026-plan-s)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체계는 "경계를 초월한 교육, 세상을 바꾸는 연구, 세계로 확장되는 글로벌 플랫폼"의 세 가지이며, 슬로건은 "한양 100년, 도약을 위한 담대한 탐험"입니다.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서울 3위 약진 이후 이 총장은 "K-Innovation 허브 대학"으로의 도약을 공식 비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직원에게 이 비전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각 부서의 연간 사업계획과 KPI 설정에 반영되는 실행 프레임워크로 작동합니다.

3-4. 재정 및 예산 구조 상세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종량, 총장 이기정 명의로 매년 2월 예산공고가 게시되고, 결산은 사립학교법 제31조, 시행령 제1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특례 제42조에 따라 공시됩니다.

등록금 수준을 보면, 학부 평균 등록금은 약 856만 4,300원(2024 기준)이며, 인문사회 712만 원, 자연과학 856만 원, 예체능 933만 원, 공학 930만 원, 의학 1,082만 원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는 2022년 2,340만 7,900원으로 4년제 대학 평균(1,775만 4,500원) 대비 약 32% 높습니다. 이는 한양대가 상대적으로 큰 교육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나, 동시에 등록금 인상이 없는 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재정 압박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2025학년도에 단행된 등록금 인상(학부 4.9%, 외국인 5%)은 14년에서 16년간의 동결을 깨는 결정이었습니다. 한양대 학생언론은 이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며, 인상분의 사용처(장학금 확대, 시설 투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명한 공시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측 의견 반영 과정이 행정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직원 가운데 재무팀이나 기획처에 배치될 경우, 등록금 인상 관련 행정(심의위 운영, 사용 계획 수립 및 공시, 학생 민원 대응)이 핵심 업무에 포함됩니다.

기술이전 수익 측면에서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기술료 131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지주회사(서울) 산하 자회사 46개의 합산 매출은 약 65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등록금 외 수익원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며, 산학협력단의 규모(종업원 769명, 매출 약 2,985억 6천만 원)를 감안하면 한양대 본체 행정과 산학협력단 행정이 별도로 작동하면서도 상호 연계되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5. 정부 및 지자체 사업 포트폴리오 상세

한양대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신규 확보한 주요 사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RISE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 진행되며, 한양대 서울캠퍼스에 19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3개 과제(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 선정 대학 가운데 과제비 기준 3위(성균관대, 서울대, 한양대 순)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입니다.

경기 RISE 사업은 ERICA캠퍼스에 5년 200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미래성장산업 선도형"이라는 과제 명으로 G7(반도체, 미래차 등)과 GX(디지털콘텐츠,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타운 2026 주관대학으로는 성동구와 한양대가 협력하는 "한양-성동 넥스트 유니콘 캠퍼스"가 선정되었습니다. 4년간 48억 원(연 12억 원)이 투입되며, 4년간 660명 AI 인재 양성, 매년 55개 유망 창업기업 배출, 아기유니콘 4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캠퍼스타운, 대학, 자치구가 1만 5천 제곱미터 창업 공간을 통합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ERICA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은 2025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1.66제곱킬로미터를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안산시와 한양학원 공동이며, 사업비 4,105억 원, 2032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유발 효과 2조 2,231억 원, 고용유발 1만 1,849명으로 추정됩니다. 캠퍼스혁신파크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인테그리스코리아 KTC, 한양대병원 분원, 국제학교 입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BRIDGE 3.0 사업(교육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에도 한양대가 선정되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차세대통신 5개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총 296억 원의 교육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 포트폴리오의 합산 규모는 RISE 양 캠퍼스 395억 원, 캠퍼스타운 48억 원, 경제자유구역 4,105억 원(안산시 공동), AI 부트캠프 296억 원 등으로, 한양대가 운영해야 하는 사업 행정의 총량이 국내 사립대 가운데 최상위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업에는 신청서 작성, 예산 배분, 집행, 정산, 성과보고서 제출, 감사 대응이라는 행정 업무가 수반됩니다.

3-6. 의료원 및 기업 후원 구조

한양대학교의료원은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산하의 행정 조직으로, 별도 의료법인이 아닙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본원은 1972년 4월 24일에 개원하였으며, 2025년 개원 5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구리병원은 1995년 개원하여 61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류마티스병원, 국제병원이 있으며, 교육협력 병원으로 명지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센트럴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의료원 전반은 한양학원 재정 안정성의 한 축이지만, 최근 한양학원은 한양산업개발 및 한양대병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양증권 매각을 진행하는 등 재단 차원의 자금 흐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한양대 본체의 교직원 처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업 후원 측면에서 한양대는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구자겸 기계관"(LS 그룹 기부), 신축 "천경준 전자관"(삼성 임원 출신 기부) 등 공학 및 전자 분야의 대형 기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의 수령, 기부자 예우, 시설 건축 및 명칭 관리는 대외협력처와 발전기금 팀의 업무이며, 한양대 동문회(약 28만 명 규모)와의 연계도 중요한 행정 업무입니다.

3-7. 한양대의 차별화 포인트 종합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한양대의 차별화 포인트를 기술, 브랜드, 채널, 비용 구조, 고객기반의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산학협력 기술이전 국내 1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46개(서울)+18개(ERICA), CES 혁신상 누계 16회, BRIDGE 3.0 핵심전략기술 5개 분야 선정 등이 핵심입니다. 브랜드 측면에서는 "실용 학풍"이라는 건학 이래의 정체성, 중앙일보 대학평가 서울 3위 약진, 2026 QS 159위(아시아 20위) 등이 브랜드 자산입니다. 채널 측면에서는 이원 캠퍼스(서울 성동구+안산 경제자유구역), 6,612명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HY-Global 해외 거점(베이징, 말레이시아, ASEAN 확장 예정), 28만 명 동문회가 핵심 채널입니다.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학부 평균 등록금 856만 원대(인상 후), 산학협력단 기술료 연 131억 원, RISE 양 캠퍼스 합산 5년 395억 원 국비 확보가 수입 다변화의 증거입니다. 고객 기반 측면에서는 학부 약 2만 4천 명(양 캠퍼스 합산), 대학원 약 9천 명, 외국인 유학생 6,612명(국내 1위), 부속병원 이용 환자 수백만 명이 핵심 고객 기반입니다.

3-8. 리스크 요인

한양대가 직면한 리스크는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로는 교육부 RISE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증감, 등록금 인상폭 제한(교육부 반환금 환수 기준),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불법 체류 및 이탈 기준 미달 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경쟁 리스크로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연구 역량 강화(QS 논문 피인용 3년간 30점 급등), 성균관대의 삼성 후원 기반 시설 투자, 지방 국립대의 RISE 수혜에 따른 연구인력 유치 경쟁 등이 있습니다. 기술 리스크로는 AI 도입에 따른 행정 시스템 전환 비용, HY-in 포털 등 학사시스템 노후화 가능성, 정보보안 사고(입시 및 연구비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인력 리스크로는 등록금 동결 장기화에 따른 직원 처우 정체, 사기업 대비 임금 경쟁력 저하, 사무직 신입의 1년 내 이탈 사례 증가라는 업계 전반의 추세가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로는 한양학원 계열사(한양증권 매각, 한양산업개발 유동성) 자금 흐름 변화, 의료원 적자 보전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로는 KAIST 제외에 따른 QS 순위 상승의 "반사이익" 프레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에 대한 사회적 비판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3-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양대학교 직원 직무는 "교육기관 직원"이라기보다 "사립학교법인 산하 복합 사업체의 행정 운영자"라는 정의가 더 정확합니다. 부속병원,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캠퍼스혁신파크, 창업타운, RISE, BRIDGE, BK21, 캠퍼스타운 등 "부서별 사업 단위"가 매우 분절적으로 작동하며, 일반행정 직원은 배치되는 부서에 따라 학사, 교무, 총무, 기획, 예산, 산학, 국제, 홍보, 도서관 등 전혀 다른 도메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부서 전문성"이 아니라 "사업 단위 행정 일반 역량과 한양대 고유의 산학 및 국제 도메인 이해"의 결합입니다. 한양대의 복합 사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립대 직원 = 학사 행정"이라는 틀로 접근하면, 입사 후 배치된 부서의 업무와 기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건학정신 "사랑의 실천"과 공식 인재상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한양대학교의 건학정신은 "사랑의 실천(애지실천, 愛之實踐)"입니다. 이는 1939년 창립 이래 한양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이며, 근면, 정직, 겸손, 봉사를 네 가지 덕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RICA 본관 입구에는 2023년 7월 리모델링과 함께 "愛之實踐" 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학생 인재상은 "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세계인, 봉사인"의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실용인"과 "봉사인"이 한양대 고유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실용인"은 한양대의 공학 중심 학풍, 산학협력 1위 실적, 기술이전 및 창업 문화와 연결되며, "봉사인"은 1994년 국내 최초 사회봉사단 설립과 사회봉사 교과목(한사봉, 한양사회봉사) 졸업 의무화(최대 4학점)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건학정신과 인재상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경험의 제도적 틀로 작동한다는 점은 일반행정 직원에게도 중요합니다. 직원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봉사 교과목의 개설, 수강 관리, 봉사기관과의 협약 행정, 봉사 시간 인증이 모두 행정 부서의 업무입니다.

4-2. 직원 윤리현장이 정의하는 직원의 역할과 자질

한양대 윤리현장은 교수, 학생, 직원 각각에 대해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핵심 조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한양대학교의 직원은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상의 연구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조항은 직원의 역할을 "행정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며, 그 목적이 "연구와 교육 환경의 최상화"임을 명시합니다. 즉 직원 업무의 최종 산출물은 "행정 그 자체"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둘째, "직원은 행정 전문가로서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이 조항은 직원을 "행정 전문가"로 호칭하며, 역량 개발과 성과 달성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라는 명칭은 사립대 직원 윤리현장에서 흔하지 않으며, 한양대가 직원에게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직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직원은 교수,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학 행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이 조항은 다(多)이해관계자 서비스 윤리를 명시합니다. "공정하고 신속"이라는 표현은 행정의 품질 기준을 정확성(공정)과 속도(신속)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보안사항과 개인정보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청렴과 정보보안을 핵심 의무로 규정합니다. 대학 행정은 입시 자료, 연구비 집행 내역, 학생 개인정보, 인사 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대량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형식적 선언이 아니라 일상 업무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을 종합하면, 한양대가 직원에게 요구하는 핵심 자질은 "행정 전문가" 정체성, 다(多)이해관계자 대상 서비스 윤리, 정보 보안과 청렴의 세 가지입니다.

4-3. "실용 학풍"이 행정 조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의 실용 학풍은 "연구실 안에서만 완결되는 연구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전통입니다. 입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학생부종합전형 강화로 구현되어 왔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으며, 이 철학이 산학협력 1위, 기술이전 1위, 창업기업 배출 상위라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원 직무 차원에서 실용 학풍은 세 가지 방식으로 조직 행동에 반영됩니다. 첫째, 형식적 절차 준수보다 사업 성과, 기술이전 실적, 창업 매출 같은 결과 지향적 평가가 우선시됩니다. 이는 일반행정 직원이 "규정을 따랐느냐"만이 아니라 "그 규정 준수가 사업 성과에 기여했느냐"까지 평가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부서 간 연계가 맞습니다. 학사, 산학, 국제, 기획이 횡적으로 묶여 하나의 사업(예: RISE 과제)을 공동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내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라는 대응이 통하지 않는 조직 구조입니다. 셋째, 외부(기업, 정부, 지자체) 파트너와의 행정 인터페이스가 맞습니다. 캠퍼스타운의 경우 성동구청 담당자,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단, 입주 스타트업 대표 등과 수시로 행정 조율이 필요하며, 이는 "교내 행정"에 익숙한 직원에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이기정 총장이 강조하는 "추론, 근거, 실행" 학습 모델은 교육 혁신의 프레임이면서 동시에 행정 업무에도 적용 가능한 사고방식입니다. 추론(현 상황의 문제점 파악), 근거(데이터 기반 분석), 실행(해결책 구현)이라는 순서는 사업 행정의 기획, 집행, 평가 사이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4-4. 노동조합 동향과 직원 조직 문화의 결

한양대학교 노동조합(직원노조)은 2025년 기준 창립 34주년을 맞은 대학노조입니다. 위원장 신이식, 사무국장 김소연(홈페이지 책임자 및 담당자 기준)이며, 노무법인 현장과 자문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 위치는 한양대학교 내(왕십리로 222)입니다.

노조 활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양대 직원 희망나눔 장학기금" 1,600만 원 출원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 노조가 학생 장학금에 기부한 것으로, 한양대 직원 조직 문화가 "사기업형 성과주의"보다는 "공공성과 구성원 연대"의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립대 직원 노조의 일반적 활동 범위에는 임금 인상 교섭, 근무시간 및 복지 협상, 인사 제도(순환보직 주기, 승진 기준) 관련 의견 개진, 고충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한양대 노조도 이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노무법인과의 정기적 자문은 노사 관계의 전문화를 반영합니다.

신입 직원 관점에서 노조의 존재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임금과 근무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 채널이 존재한다는 안정성입니다. 둘째, 조직 내에서 "관리자 대 피관리자"라는 위계적 구분보다 "구성원 전체의 연대"라는 수평적 인식이 일정 부분 작동한다는 문화적 특성입니다.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한양대 직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노조의 존재와 활동 방향은 참고할 만한 요소입니다.

4-5. 사립대 직원의 처우와 근무 환경, 한양대의 위치

사립대 정규직 교직원의 일반적 근무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체계는 호봉제가 기본이며, 매년 호봉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근무 시간은 학기 중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방학 중에는 단축근무(오후 4시 또는 5시 퇴근)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학, 졸업, 평가 시즌에는 야근이 발생하며, 수능, 대학 수학능력시험 감독, 대학 자체 시험 등 외부시험 및 대학행사 동원이 수반됩니다.

한양대의 경우, 잡플래닛에 등록된 직원 자율신고 기준 평균연봉은 302건 기준 약 2,921만 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수치는 직군과 연차 분포가 비공개인 자율신고 데이터이므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니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잡코리아에 게시된 2026년 1월 직원 채용 공고의 연봉 표기인 4,1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며, 이번 26상반기 공고도 동일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의 잡코리아 기재 평균연봉은 약 3,742만 원(2016 기준), 구리병원 약 3,382만 원,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약 3,825만 원으로 그룹 내 기관별 분포가 다양합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10여 년 전의 호황기와 비교하면,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사립대와 사기업 간 임금 격차가 벌어졌고, 사무직 신입의 1년 내 이탈 사례가 늘었다는 업계 인식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양대는 SKY와 성균관대 다음 그룹의 최상위 사립대로, 동급 사립대(중앙, 경희, 서강, 이화) 대비 평판과 산학협력 KPI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직원 직무의 다양성과 외부 노출 기회는 동급 대비 큰 편입니다. 산학협력단, RISE 사업단, 캠퍼스타운 사무국, 국제처 등에 배치될 경우 정부 부처, 기업, 지자체 관계자와의 업무 접점이 넓어지며, 이는 직원의 경력 개발에서 일반 사립대 행정 경험과 차별화 되는 요소입니다.

4-6.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의 역량과 사고방식

사립대 종합대학이면서 산학협력 강세 학교라는 도메인 특성을 분해하면, 한양대 일반행정이 선호할 인재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 행정 친화성입니다. BK21, LINC 3.0, RISE, BRIDGE, 캠퍼스타운 등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신청서 작성, 예산 집행, 정산, 평가지표 관리를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회계와 예산, 증빙의 정합성에 대한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며, 사업비 정산 오류는 환수 및 사업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多)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교수(권위와 전문성 존중), 학생(소비자이자 민원 제기자), 학부모(비대칭 정보 상태에서의 불안), 정부(평가와 감사 주체), 기업 및 지자체(파트너이자 이해관계 조율 대상)라는 다섯 종류의 이해관계자를 동시에 응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 윤리현장이 명시한 "친절, 봉사, 공정, 신속"을 상황에 따라 균형 있게 구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셋째, 데이터 및 문서 처리 표준 역량입니다. 엑셀, PPT, HWP, HY-in 포털, 통합정보시스템(SUIS형) 등 학사, 인사, 예산 시스템의 활용 능력이 필수입니다. 일반행정 지원자격으로 TOEIC 800점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 영문 문서 처리 및 외국인 학생 응대 가능 수준의 영어가 사실상 자격선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한양대가 외국인 유학생 1위 대학이라는 맥락에서, 국제 행정 업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발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변화 적응력과 순환보직 수용 자세입니다. 사립대 일반행정은 3년에서 4년 단위의 부서 순환이 일반적입니다. 학사에서 총무로, 총무에서 기획으로, 기획에서 산학으로, 산학에서 국제로 옮겨 다니는 경력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특정 직무에 대한 강한 선호보다는 어떤 부서에 배치되더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민첩성이 핵심 역량입니다. 한양대는 직원에 대해 "행정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전문성"은 특정 분야의 깊이보다는 "행정 일반 역량의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공공성과 청렴, 정보보안 의식입니다. 대학 행정은 학생 개인정보, 시험 자료, 입학 데이터, 연구비 집행 내역 등 민감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입니다. 윤리현장이 명시한 "보안사항과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일상 행정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입니다. 입시 시즌에는 입학전형 관련 정보의 보안이 특히 중요하며, 연구비 행정에서는 사적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유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실용 학풍" 사고방식입니다. 형식 행정에 머물지 않고, 사업 성과(기술료 실적, 창업 KPI, 외국인 유학생 정주율 등)에 기여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 지향성이 요구됩니다. 잡플래닛 등 직장 후기에서는 한양대가 "사기업 출신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실용 학풍이 채용 기준에도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7. 한양대 일반행정이 요구하는 인재의 표준상

위의 여섯 가지 특성을 종합하면, 한양대 일반행정에서 "맞는" 인재는 이상주의적 학사 행정가가 아니라, 사업과 예산, 평판 KPI를 행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프로페셔널 사무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윤리헌장의 봉사, 공정, 청렴이 평가의 하한선으로 작동하며, 노조 문화상 "구성원 연대"적 자기인식도 함께 요구됩니다. 요약하면 "성과형 사무 전문가"와 "공공성 인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한양대 직원의 표준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한양대의 조직 맥락에서는 "사업 성과를 내되,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양립합니다.

4-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 분석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한양대 일반행정 직원은 "학사 행정의 정확성"이라는 하한선 역량과, "사업 행정의 결과 지향성"이라는 차별화 역량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없으면 기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후자가 없으면 한양대라는 조직의 차별화 포지셔닝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양대가 "공식적으로는" 실용과 봉사를 동시에 강조하는 문화이므로, 성과만을 내세우거나 봉사만을 내세우는 편향된 접근은 조직 문화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장: 직무 분석

5-1. 채용 구조와 자격 요건

한양대학교는 2025년 10월 30일 공고로 2026년 상반기(2026년 1월 1일 임용) 신입 교직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무직(신입) 모집분야는 일반행정, 일반행정(보훈), 입학사정관, 기록연구사, 전산개발, 방사선 안전관리, ERICA 입학사정관이었으며, 기능직(경력)으로 전기기능사(ERICA), 영선(ERICA)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행정의 자격 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음, 공인 어학시험 TOEIC 800점 이상입니다. 채용 사이트는 hyu.recruiter.co.kr(별도로 hyu.careerlink.kr도 운영)이며, 잡코리아와 사람인에 게시된 연봉 표기는 4,100만 원에서 4,400만 원입니다. 근무지는 서울 성동구 본캠퍼스 또는 안산 ERICA캠퍼스입니다.

2025년 신입 교직원 공고(전년 기수)는 5월 15일 17시 마감, 6월 20일 최종 발표였으며, 본 분석 대상인 5월 18일 10시 마감(26상반기) 공고는 그 후속 또는 추가 공고로 추정됩니다. 후보자는 한양대 채용 사이트에서 해당 공고의 최신 버전을 반드시 확인하여 모집분야, 인원, 자격을 본 리포트의 정보와 대조해야 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5-2. 일반행정 직원이 배치되는 부서의 전체 스펙트럼

대학 일반행정은 하나의 고정된 직무가 아니라, 부서 순환 시스템 내에서 복수의 이질적 업무 영역을 거치는 직무입니다. 한양대 사이트맵과 조직도를 기준으로 일반행정 직원이 배치될 수 있는 주요 부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 운영 유형에는 학사운영팀(서울 및 ERICA), 입학처, 학생지원팀(장학), RC행정팀(단과대학 소속), 교무팀이 포함됩니다. 이 부서들은 수강신청, 등록금 고지 및 환불, 학적 변동(휴학, 복학, 전과, 졸업), 장학금 심사 및 지급, 입학 전형 운영 등 학사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영 지원 유형에는 총무팀, 인사팀, 기획처(전략, 중기발전계획, 대학평가 대응), 재무팀(예산, 결산, 등록금 행정), 시설 및 관재팀이 포함됩니다. 이 부서들은 대학 운영의 기반 인프라를 관리하며, 교직원 인사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설 유지보수, 물품 조달 등을 담당합니다.

산학협력 및 연구 유형에는 산학협력단(연구진흥팀, 기술사업화센터, 연구지원팀, 글로벌연구지원팀, 경영지원팀, 종업원 769명 규모),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 사무국이 포함됩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의 규모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이 유형의 부서에 배치될 경우 일반 학사 행정과는 전혀 다른 업무(연구비 정산, 기술이전 계약, 기술지주회사 행정, 창업기업 지원, 정부 사업 과제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제화 유형에는 국제처, 국제교육원, 국제입학팀, 글로벌인재개발센터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6,612명(국내 1위)의 입학, 비자, 생활 지원,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해외 파트너 대학과의 협약 관리 등이 핵심 업무입니다.

교육 혁신 및 홍보 유형에는 대외협력처, 홍보실(뉴스H 등 학교 언론 운영), AI융합교수학습팀, 교육혁신팀, 백남학술정보관(도서관), 평생교육원(미래인재교육원)이 포함됩니다.

사업 추진 유형에는 RISE 추진단, LINC 3.0 사업단, BK21 사업단, BRIDGE 3.0 사업단이 포함됩니다. 이들 부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과제 관리, 참여 교원 및 학생 행정, 성과 보고, 사업비 정산을 전담합니다.

생활 및 복지 유형에는 학생생활관(기숙사), 건강센터, 상담센터, 인권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넓은 부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행정 직원 한 명이 재직 기간 동안 학사, 총무, 기획, 산학, 국제, 홍보, 도서관, 사업단 등 전혀 다른 도메인을 순환하면서 경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3년에서 4년 주기로 보직이 변경되므로, 20년 재직 시 최소 5개에서 7개의 서로 다른 부서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3. 학기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연간 업무 흐름

대학 행정은 학사일정에 강하게 종속되며, 1년을 크게 6개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월은 1학기 개강 시기입니다. 신입생 등록 및 OT(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 잔여 처리, 등록금 분할납부 1차분 수납(2026-1 기준 3월 4일부터 3월 6일), 신학기 학생증 발급, 신입 교직원 배치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집니다. 국제처에서는 가을학기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갱신 행정이 병행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4월과 5월은 학기 중반 시기입니다. 캠퍼스 디자인 및 창업경진대회 모집(예를 들어 2026 한양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사업기획 연락처 02-2220-2872), 중간고사 운영, 외부 사업(한국연구재단, 교육부, 과기정통부) 공모 행정, 직원 채용 시즌(이번 5월 18일 마감 공고 포함),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예결산 후속 행정 등이 진행됩니다. 일반행정 신규 채용의 서류 전형과 SI역량검사, 면접이 이 기간에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6월과 7월은 종강 및 계절학기 시기입니다. 기말고사 운영 후 종강, 계절학기 개설 및 운영(서울 02-2220-0060, ERICA 031-400-4219), 1학기 결산 마감, 입시 모집요강 확정, 재외국민 전형 운영(7월 전후) 등이 핵심 업무입니다.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인식되지만, RISE, BK21, BRIDGE 등 사업 보고서 제출이 학사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사업 행정 담당 부서는 여전히 업무 밀도가 높습니다.

8월과 9월은 2학기 등록 및 수시 입시 시기입니다. 2학기 등록 접수, 수시 입시 운영(2026학년도 기준 수시원서 접수, 서류 평가, 면접 등),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학 행정 등이 집중됩니다. 입학처와 국제입학팀의 업무 강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일반행정 직원이 입시 운영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은 수능 및 외부 평가 대응 시기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대학 시설 제공 및 감독 행정, 정시 모집 준비, 매년 실시되는 직원 공채의 다음 기수 공고 준비, 외부 평가(중앙일보 대학평가, QS, THE 등)를 위한 데이터 제출,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전 토의 등이 진행됩니다.

12월부터 2월은 학위수여 및 신학기 준비 시기입니다. 학위수여식 운영, 결산 공고, 다음학기 등록금 고지(분할납부 1차 신청 2월 11일부터 2월 17일), 신입생 OT 준비, 신규 채용 교직원 임용 행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학사 사이클 위에 BK21(연차 평가 1월), RISE(연차 목표 이행 점검 10월 또는 11월), BRIDGE(반기 보고 6월, 12월), 캠퍼스타운(사업계획 변경 신청 4월, 성과보고 2월) 등의 사업 행정이 별도의 일정으로 중첩됩니다. 일반행정 직원의 "한가한 시기"라는 것은 학사 부서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사업 행정 부서에서는 사실상 연중 무휴에 가까운 업무 밀도가 유지됩니다.

5-4. 이해관계자 맵 상세

한양대 일반행정 직원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해관계자는 일곱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교수(전임, 겸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단 PI)는 행정 서비스의 핵심 수요자입니다. 연구비 신청 및 정산, 강의계획서 관리, 인사평가 및 승진심사 지원, 교수회의 안건 준비 등이 교수 대상 행정의 주요 업무입니다. 교수와의 관계에서 행정 직원은 "전문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학술적 전문성은 갖추지 않더라도 행정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은 등록, 장학, 수강, 졸업, 민원, 기숙사, 취업 및 창업 지원의 대상입니다. 학생은 대학 행정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민원 제기자"이기도 하며, 최근 대학생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HY-in 포털, 콜센터, 이메일, 대면 창구에서의 응대 만족도가 행정 품질의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부모 및 가족은 등록금 고지서 발급, 간단출력(생년월일과 학번, 성명으로 접근), 장애학생 지원 등의 맥락에서 행정과 접점을 갖습니다. 학부모는 교육 서비스의 실질적 비용 부담자이면서도 학교 행정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동문 및 발전기금 기여자는 약 28만 명 규모의 동문회,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구자겸 기계관 (LS), 천경준 전자관(삼성 임원 출신) 등 대형 기부자의 행정 관리, 발전기금 리포트 작성 등의 맥락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부는 교육부(대학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 대학평가, 구조개혁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 사업, BK21),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 BRIDGE), 중소벤처기업부(창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 사업) 등 다수 부처와 행정 접점을 갖습니다.

지자체는 서울시(RISE, 캠퍼스타운), 성동구(캠퍼스타운 협력), 경기도(RISE), 안산시(경제자유구역 공동 시행), 구리시(구리병원 소재), 광명시 등과의 협약 및 사업 파트너 관계가 핵심입니다.

기업, 연구기관, 국제 파트너는 LG이노텍, 카카오 데이터센터, 인테그리스코리아, HDC현대EP, 메가존 클라우드, LG유플러스,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기업과, 중국 하이얼 창업센터, 산둥성 전자학회, 홍콩중문대 등 해외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들과의 행정 접점은 공동연구 계약, 기업 입주(캠퍼스혁신 파크), 학생 인턴십 배치,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한양대 일반행정 직원의 이해관계자 맵은 교내(교수, 학생)에서 교외(정부, 지자체, 기업)까지 매우 넓으며, 각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행정 수준이 다릅니다. 교수에게는 정확한 절차 안내와 전문적 지원, 학생에게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 정부에게는 정확한 데이터 공시와 사업 보고, 기업에게는 유연한 협약 조율이 각각 요구됩니다.

5-5. 필요 역량과 평가 KPI 추론

공식 직원 윤리헌장, 채용 공고 자격 요건, 부서 공시 자료를 종합하여 일반행정 직원에게 적용될 KPI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 운영 정확도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등록 및 수강신청 처리 오류 건수, 등록금 환불 및 분할납부 처리 정확도, 학적 변동(휴복학, 전과, 졸업) 처리 SLA(서비스 수준 협약) 등이 측정됩니다. 학사 오류는 학생의 학기 이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영역에서의 실수 허용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민원 및 이해관계자 응대 품질은 HY-in 포털, 콜센터, 이메일, 대면 창구에서의 응대 만족도로 측정됩니다. 학부모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국어 응대 가능성도 평가 요소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한양대의 외국인 유학생 1위 특성상 영어 또는 중국어로의 기본 응대 역량이 중요합니다.

사업 유치 및 집행 실적은 부서별로 다릅니다. RISE 단위과제의 연차 KPI 달성률, BK21 4단계 성과 평가 등급, BRIDGE 3.0 사업화 실적,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배출 수 등이 해당 부서에 배치된 직원의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서울 RISE 5년 195억 원, 경기 RISE 5년 200억 원의 사업비 집행률과 평가등급은 해당 사업단 직원의 핵심 KPI입니다.

창업 및 산학 KPI는 매년 55개 유망 창업기업 배출, 아기유니콘 4개 이상 육성(캠퍼스타운 목표), 1만 5천 제곱미터 창업 공간 운영, 기술이전 수익 국내 1위 유지(연평균 131억 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KPI는 유학생 수 유지 및 확대, K-Culture 및 K-Tech 결합 산업 기반 교육 프로그램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의 정주율 및 취업률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금 및 예산 적합성은 등록금 인상분 사용 계획(장학, 시설, 교육환경)의 집행 투명성, 예결산 공시 적시성 등으로 평가됩니다.

정보보안 및 청렴은 입시, 연구비, 개인정보 관련 보안 사고 발생 건수, 윤리헌장 준수 여부 등이 평가 기준입니다. 보안 사고 0건이 기본 기대치이며, 사고 발생 시 해당 부서 전체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5-6. 한양대 일반행정의 차별적 직무 환경

타 사립대와 비교하여 한양대 일반행정이 갖는 고유한 직무 환경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산학협력단의 규모입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종업원 769명, 매출 약 2,985억 6천만 원(2024년, NICE D&B 기준)에 이르는 사실상 독립 사업조직입니다. 일반행정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산학협력단 행정에 배치되며, 이 경우 "대학 행정"이라기보다 "준(準)기업 행정"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구비 관리, 기술이전 계약, 자회사 관리, 지식재산권 등록 및 유지, CES 등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화 행정의 비중입니다. 국내 유학생 1위(6,612명)에 더해 HY-Global 베이징, 말레이시아, ASEAN, 중동, 북미 단계적 확장이 예정되어 있어, 외국인 응대, 비자 행정, 이민법 관련 행정 절차 지원, 유학생 생활 지원(기숙사, 보험, 의료) 등의 비중이 타 사립대에 비해 현저히 큼니다.

부동산 및 산업단지 행정입니다. ERICA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1.66제곱킬로미터, 사업비 4,105억 원), 캠퍼스혁신파크(18.4만 제곱미터, 약 5.6만 평, 1,000여 개 기업 입주 및 1만 명 일자리 목표), 성동 캠퍼스타운 공간(1만 5천 제곱미터) 등은 일반 사립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지 및 시설 운영 행정을 발생시킵니다. 기업 입주 계약, 시설 사용료 정산, 안전 관리, 건축 인허가 행정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병원 의료원 연계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서울병원, 구리병원, 류마티스병원, 국제병원)은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산하 행정 라인이 별도로 존재합니다(별도 의료법인이 아님). 일반행정 직원이 의료원 관련 행정에 배치될 가능성은 낮으나, 의료원의 재정이 한양학원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므로 기획처나 재무팀에 배치될 경우 의료원 예산과의 연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5-7. 하루 단위의 업무 흐름 추론

대학 행정직의 일반적인 하루 업무 흐름을 학사운영팀(학기 중)을 예시로 추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이메일과 HY-in 포털 민원을 확인합니다. 전날 접수된 학적 변동 신청(휴학, 복학, 전과), 장학금 관련 문의, 등록금 분할납부 관련 질의 등을 분류하고 처리 순서를 정합니다. 오전 중에는 학생 민원 대면 및 전화 응대, 학적 변동 서류 검토 및 승인, 수강신청 이의 처리 등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부서 내 회의(주 1회 정도), 상급자 보고(학사운영팀장에게 주간 업무 보고), 외부 사업(RISE 과제 관련 데이터 수합 등) 관련 행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계절학기 운영 기간에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민원이 추가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퇴근하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수강신청 집중 기간(개강 전 1 주), 졸업 심사 기간에는 야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단축근무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업 행정 부서는 방학 기간에도 정규 근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배치된 경우의 하루는 크게 다릅니다. 연구비 정산 서류 검토, 기술이전 계약 초안 검토, 자회사 운영 현황 보고, 정부 사업 공모 일정 확인 및 내부 공지, 기업 파트너와의 미팅 일정 조율 등이 핵심 업무가 됩니다. 국제처에 배치된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서류 검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외 파트너 대학과의 이메일 교신(영어), 교환학생 파견 및 수용 행정 등이 일상 업무입니다.

5-8. 경력 경로와 장기 발전

한양대 일반행정 직원의 경력 경로는 3년에서 4년 단위 순환 보직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입 직원은 학사운영팀, 총무팀, 재무팀 등 기본 행정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 기본기를 익힌 뒤, 2번째 보직부터 산학협력단, 국제처, 기획처, 사업단 등으로 이동합니다. 승진 구조는 호봉제에 기반하며, 대리, 과장, 팀장, 처장 등의 직급 체계를 따릅니다.

장기적으로 한양대 일반행정에서의 경력 가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대학 행정 전문가로서의 커리어 지속(한양대 내 승진 또는 타 대학 이직)입니다. 둘째, 산학협력 및 정부 사업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산하 기관, 지자체 산학 담당) 이직입니다. 셋째,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VC,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운영 지원 분야 이직입니다. 한양대의 산학협력 1위 실적과 기술지주 자회사 46개(서울)+18개(ERICA)라는 포트폴리오는 이 세 번째 경로의 현실성을 높여줍니다.

5-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한양대 일반행정 직무를 "어느 사립대에서나 비슷한 학사 사무"로 인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인식은 세 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입니다. 학사 및 총무의 기본기 위에, RISE, 캠퍼스타운, 기술이전, 외국인 유학생, 경제자유구역 같은 한양 고유 사업 도메인이 얹혀 있으며, 그 모든 행정의 평가 잣대가 이기정 총장 비전("AI와 국제화, 실용학풍 기반 K-Innovation 허브")의 KPI와 정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산학 및 창업 행정에 대한 이해, 영어 등 외국어로 이해관계자를 응대할 수 있는 가능성, 정부 사업 정산 및 평가 행정에 대한 친화성,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QS 2026 세계대학랭킹 분석 — <https://www.spotlightuniv.com/%E3%80%902026-qs-%EC%84%B8%EA%B3%84%EB%8C%80%ED%95%99%EB%9E%AD%ED%82%B9-%EC%A7%91%EC%A4%91%EB%B6%84%EC%84%9D-4%E3%80%91%ED%95%9C%EA%B5%AD-%EB%8C%80%ED%95%99%EC%9D%98-%ED%98%84%EC%A3%BC%EC%86%8C/>
2. 베리타스알파, 2026 QS 세계대학 순위 분석 — <http://www.veritas->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 a.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373
3. 한국대학신문, QS 세계대학순위 국내 대학 3개년 분석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275>
 4. 한국대학신문, 2026 QS 학과별 순위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063>
 5. 베리타스알파, 2026 QS 아시아 대학 순위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657>
 6. 한국대학신문, 2026 QS 지속가능성 순위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6370>
 7. 교육을 비추다, 학령인구 500만 명 붕괴 —
<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7>
 8. 교육을 비추다, 2026 수시 경쟁률 분석 —
<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5>
 9. 교육을 비추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
<https://www.kyobit.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9>
 10. 유니밸리, 한양대 등록금 5% 인상 관련 보도 —
<https://www.univalli.com/news/article.html?no=25139>
 11. 전자신문,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및 국제화 비전 간담회 —
<https://www.etnews.com/20251125000365>
 12. 서울경제, 이기정 한양대 총장 대교협 회장 취임 —
<https://m.sedaily.com/article/20014564>
 13. 한국경제, 이기정 한양대 총장 대교협 회장 취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364591>
 14. 대학저널, 대교협 신임 회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취임 —
<https://www.dhnews.co.kr/news/view/1065587889822569>
 15. 뉴스H, 한양대 2026년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선정 —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9990>
 16. 코리아넷, 외국인 유학생 많은 대학 1위 한양대 — <https://www.korean-culture.org/koreanet/view.do?seq=1048726>
 17. 중앙이코노미뉴스, 한양대 ERICA 대학평가 인정 —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834>
 18. 교수신문, 한양대 산학협력단 과기정통부 장관상 —

심층 분석 보고서: 한양대학교-사무직(일반행정)

-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519>
1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https://hyu.wiki/%EC%82%B0%ED%95%99%ED%98%91%EB%A0%A5%EB%8B%A8>
20. 아시아경제, 한양대 ERICA 혁신파크 안산사이언스밸리 편입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92610590633271>
21. 한국대학신문, 한양대 ERICA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404>
22. 아이로봇뉴스, 경기 안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https://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49>
23.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 <https://startup.hanyang.ac.kr/>
24.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https://www.hanyang.ac.kr/web/www/holdings>
25. 아웃소싱타임스, 한양대학교 2026년 상반기 교직원 채용 —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0>
26. 한양대학교 사랑의 실천 페이지 — https://www.hanyang.ac.kr/web/www/love_indeed
27. 한양대학교 2026 중기발전계획 (서울) — <https://www.hanyang.ac.kr/web/www/2026-plan-s>
28.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 <https://labor.hanyang.ac.kr/>
29. 잡플래닛, 한양대학교 연봉정보 —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86735/salaries/%ED%95%9C%EC%96%91%EB%8C%80%ED%95%99%EA%B5%90>
30. 한양대학교 재무안내 — <https://finance.hanyang.ac.kr/home>